## 국가대표 활약→투수 4관왕→ML 도전→'먹튀' 오명

# 윤석민, 파란만장 현역 '마침표'

### KIA 스프링 캠프 준비중 어깨 부상 극복 못하고 전격 은퇴선언
### 12시즌 398경기 77승 평균자책점 3.29…12경기 완투 중 완봉승 6회
### 팀·국가대표 에이스 활약…다음달 팬 초대 식사 대접·자선 행사 계획

'불운의 에이스'였지만 KIA타이거즈 윤석민은 "나는 행복한 선수였다"며 작별 인사를 전했다.

KBO리그 최고의 우완으로 손꼽히던 윤석민이 지난 13일 은퇴를 발표했다.

선동열과 함께 KBO리그 37년 역사에 두 번밖에 기록되지 않은 '투수 4관왕' 윤석민은 MVP, 국가대표 에이스 등의 화려한 이력을 뒤로하고 부상으로 굴곡진 15년의 그라운드 인생을 마무리했다.

스프링캠프를 준비했던 윤석민은 "주사를 맞으면서 버텨왔는데 정상적인 투구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캠프에서 잘 준비하고 마지막까지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좋지 않은 모습만 보일 것 같았다. 투수 최고참인데 이런 상황에서 후배들 앞에 서는 게 미안했다. 많이 힘들었는데 막상 은퇴를 결정하니 마음이 편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2005년 KIA 유니폼을 입은 윤석민은 미국 진출과 부상으로 빠진 3시즌을 제외한 12시즌에서 398경기에 나와 77승(75패) 86세이브 18홀드 평균자책점 3.29를 기록했다. 12차례 완투를 했고, 이 중 6경기는 완봉승이었다.

선발 등판마다 '노히트 노런'을 기대하게 했던 윤석민은 "2008년 LG잠실전에서 6회까지 퍼펙트를 했다. 7회만 넘기면 노히트노런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 7회 2사에서 우익수 이종범 선배님이 공을 잡지 못했는데 안타가 기록됐다"며 "그 경기가 유일하게 노히트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다"고 회상했다.

2009 WBC 베네수엘라전은 여전히 많은 야구팬들에게 회자되는 피칭. 국제 대회에서도 윤석민은 에이스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했지만 그의 이름 앞에는 '불운'도 함께했다.

2007년 3.78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한 윤석민은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무려 18패를 떠안았다. 어깨 수술 전 마지막 등판이었던 2016년 4월 17일 광주 넥센전도 9이닝 2실점 완투패. 팀 사정상 선발과 마무리를 오가야 했던 그는 4관왕과 MVP를 이룬 2011시즌에는 선동열 감독 체제를 꾸린 구단의 반대로 포스팅 꿈을 접어야 했다.

윤석민은 "2011년에는 동료들이 경기 시작하면 점수를 뽑아줘서 힘든 경기가 별로 없었다"며 "이해 MVP경쟁이 치열했다. 너무 받고 싶었는데 긴장했다. 가장 기뻤던 순간 중 하나다"고 돌아봤다.

이어 "2011년에 미국에 안 간 게 많이 후회됐다. 2013년 FA로 갔는데 돌아보면 하늘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다(웃음). 비자도 늦어지고 에이전트가 집도 구해놓지 않아서 초반에 떠돌이 생활도 했다"며 "결과는 실패지만 후회는 없다. 너무 간절했던 꿈이고, 도전이었다"고 언급했다.

윤석민은 타이거즈 선수로 뛴 '행복한 선수'였다고 말한다.

윤석민은 "대학 진학을 걱정하던 선수였는데 3학년 때 키도 크고 힘이 붙으면서 프로에 왔다. 내가 이 팀에 왔기 때문에 신인 때부터 경기를 뛸 수 있었다"며 "또 이곳에 와서 이광우 코치님을 만났고, 많은 변화구를 배웠다. 가장 존경하고 감사한 분이다"고 말했다.

이강철 KT 감독과 김기태 전 감독도 고마운 은사. 힘든 시기에 자신감을 불어준 조범현 감독의 '말'도 잊지 못한다.

윤석민은 "2010년에 손가락도 부러지고 성적이 많이 없었는데 감독님께서 '넌 그래도 윤석민인데 가서 도와주라'며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가자고 하셨다. 너무 감사했다. 결승전에서 (류)현진이가 4이닝 3실점하고 내려갔고 내가 남은 이닝 던져서 (양)현종이 군대 면제 시켜줬다(웃음). 그때 뿌듯했다"고 말했다.

팬들의 뜨거웠던 응원은 윤석민에게 큰 힘이었고 이제는 미안함이 됐다.

윤석민은 "2013년 부상에서 돌아왔는데 목동에서 팬들이 너무 뜨겁게 반겨주셨다. 당시 소름이 돋았다. 눈물 날 뻔했다. 선발 등판 때는 전날부터 먹는 것도 신경 쓰고 많이 예민했다. 팬들에게 더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게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윤석민은 내년 1월 팬들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자선 행사도 할 계획이다.

야구를 내려놓은 윤석민은 평범한 남편, 아빠로 돌아간다. 마지막에 달았던 24번은 자신과 아내, 큰 아들 생일 '24일'을 뜻했다.

윤석민은 "아들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도 싶었는데 자신이 없었다. 나중에 커서 아빠가 이런 선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만 다른 안 좋은 것들도 보게 될까 봐 빨리 평범한 아빠로 가기로 했다"며 "정말 많은 사랑 받았다. 이 사랑 잊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전남드래곤즈, 공개 테스트로 첫 선수 영입

### 미드필더 안재홍·공격수 김보용…400명 지원 88명 경합

전남드래곤즈가 공개테스트를 통해 화성FC 출신의 포워드 김보용(22)과 영남대 출신의 미드필더 안재홍(21)을 영입했다.

전남은 지난달 25~27일 '프로선수단 공개 테스트'를 갖고 공정한 시스템 정착과 숨은 인재 발굴을 위해 나섰다. 400여명의 지원자 중 88명의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3일간 진행된 실기 테스트 끝에 최종 두 명이 선발됐다.

화성FC 출신의 김보용은 저돌적인 돌파와 영리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상대 진영으로의 침투에 능하다는 평가다.

김보용은 "사실 너무 꿈 같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공개테스트로 들어온 첫 프로선수인데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는 걸 모두에게 증명하겠다. 전남의 승격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영남대 재학 중인 안재홍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공간 침투에 능하고, 수비 가담 범위 또한 넓다.

안재홍은 "매일 도전과 경쟁을 해야 했기에 괴롭기도 했던 공개테스트 3일이었다"며 "팬, 감독 및 코칭 스태프, 선수 등 모두에게 안재홍이라는 선수를 알리고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남이 공개테스트로 프로 선수단을 모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로 공개테스트 첫 주자가 된 두 사람이 2020시즌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안재홍

김보용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 야구소프트볼인들 한자리에

### 소프트볼협회 '야구인의 밤'
### 수창초 류창희 감독 감독상
### 최현규, 최우수 선수

지난 13일 광주시체육회 국민생활관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광주시야구소프트볼인의 밤' 행사가 끝난 뒤 수상자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제공〉

'2019 광주시야구소프트볼인의 밤' 행사가 성료됐다.

지난 13일 광주시체육회 국민생활관 1층 세미나실에서 '광주야구소프트볼인의 밤' 행사가 열렸다. 광주 야구·소프트인들은 이 자리를 통해 한 시즌을 돌아보고 2020시즌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나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우리 지역 초·중·고가 6개 대회 우승을 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지만 올해는 마지막 전국대회인 박찬호기 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수창초가 우승했다"며 "그래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명진고 소프트볼 은메달, 동성고 야구 동메달로 야구소프트볼 종목이 종합 2위의 성적을 거두며 광주 체육계에서 야구 종목의 위상을 높였다"고 언급했다.

올 시즌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과 선수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제19회 박찬호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를 제패한 수창초 류창희 감독이 최우수 감독상을 받았고, 최현규가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다.

제49회 회장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 준우승을 이룬 대성초 신경호 감독과 김근화는 각각 우수 감독상과 우수 선수상을 받았다.

2019 U-15 전국유소년야구대회 준우승을 차지한 충장중 나길남 감독과 최한결도 우수 감독상과 우수 선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전국체전에서 광주에 은메달과 동메달을 선물한 명진고 김정진 감독과 동성고 김재덕 감독도 우수 감독상을 받았다. 명진고 윤은비와 동성고 김민규는 우수선수로 단상에 올랐다.

서석초 허유준과 충장중 서하은은 최우수타격상(협회장상)의 주인공이 됐다. 허유준은 올 시즌 22타수 13안타, 0.591의 타율을 기록했다. 서하은은 25타수 14안타 0.560의 타율을 찍었다.

우수타격상(동우회장상)은 대성초 이태훈과 진흥중 김준연에게 돌아갔다. 이태훈은 타율 0.556(27타수 15안타), 김준연은 타율 0.459(37타수 17안타)를 기록했다. 또 박상섭 심판이 최우수심판상, 이정현 전 동성고 야구부장이 공로패를 받았다. 윤상훈 (주)청연 홀딩스 이사에게는 감사패가 주어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